

새책

▶국가경영은 세종처럼(박영규 지음)=책은 세종의 통치행위를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세종이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떤 비전을 갖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했는지, 그 정치리더십의 본 모습을 왕조실록의 사료에 근거해 전한다. 통나무. 1만6000원.



▶완벽한 아내를 위한 레시피(카르마 브라운 지음, 김현수 옮김)= '완벽한 아내'라는 허상과 사회적 기대치를 깨부수며 나아가는 이 소설은 여성들의 주체적인 선택과 복수가 주는 쾌감을 솜씨 좋게 선보이며 She Reads 선정 2020년 가장 기대되는 여성 소설로 뽑혔다. 저자는 두 인물이 봉착한 결혼 생활의 난관에 대한 해답으로 '여성 간의 연대'를 보여준다. 미디어장비. 1만7000원.



▶콜카타의 세 사람(메가 마중다르 지음, 이수영 옮김)=기차 테러 사건에 우연히 휘말려 체포된 젊은 여성 '지반'과 지반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증인인 배우 지망생 '리블리', 테러 사건 재판과 여론을 발판 삼아 정당정치에 뛰어든 중년 남성 '체육 선생' 등 세 주인공이 자신의 사건에 휘말려 서로 다른 운명으로 질주하는 희비극이다. 북하우스. 1만5000원.



▶시베리아의 이방인들(장마리 지음)=한국의 준호는 가업을 살릴 시베리아산 소나무를 얻기 위해, 북한의 지식은 공화국의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의 빅토르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척박한 땅 시베리아에 머물게 된다. 그들은 운명 같은 실패에서도 새로운 우정을 피워낸다. 문학사상. 1만4500원.



▶잘못 읽었던 한국시 다시 읽기(손필영 지음)=저자는 우리나라 시사에 남을 열아홉 시인의 대표작에 대해 참신하고 세밀한 비평적 해설을 시도했다. 저자는 이 책을 낸 이유에 대해 "이 땅에 지금과 같은 시적 형식으로 보편화된 자유시의 형성과정을 다시 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빗방울화석. 1만3000원.



▶하나님 부처님 알라를 만나는 방법(우명 지음)=책은 종교의 본질에서부터 개인의 마음 문제에 이르기까지 214개의 화두와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 저자는 답을 통해 종교의 목적과 깨달음,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면 진짜 나를 찾고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찾아 그 진리가 되는지 알려준다. 참출판사. 1만8500원.



오른지기자 ejoh@ihalla.com

스스로 생각하는 힘으로 초협력 시대 열자

이종필의 '우리의 태도가 과학적일 때'

NIV와 초연결 정신 구현 이 시대 필요한 핵심 요소

그는 교양과학 수업 첫 시간에 대학 생활에 항상 이 말을 소개한다고 했다. "Nullius in verba." 라틴어로 "어느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남의 말 쉽게 믿지 말라"는 뜻을 지녔다. 그가 영국의 유서 깊은 과학자 단체인 왕립학회의 모토인 'NIV'를 꺼내는 건 과학과 관련된 지식을 하나 얻는 것보다, 남의 말을 쉽게 믿지 않고 항상 스스로 확인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이 과학의 출발이라고 본다.

건국대 교수인 물리학자 이종필의 '우리의 태도가 과학적일 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요소로 NIV를 우선 꼽는다. NIV의 본뜻은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 결국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라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팬데믹을

겪고 있는 오늘날 그 같은 과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저자는 과학이야말로 새로운 이론, 새로운 방법 등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학문이라고 말한다. 그때의 과학은 남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우리 자신과 주변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각, 나의 철학으로 세상을 읽고 그로부터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정보를 얻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모른 채 지시가 내려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거나 상사 앞에선 항상 부족한 아이가 되어 예뻐해 달라고 징징거리는 이들이 있다.

그가 과학하는 핵심 요소로 제시한 또 다른 하나는 초협력이다. 과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세기의 천재가 출연하듯 우주의 비밀을 알아내는 모습이지만 이는 어느 한



순간의 단면만 잘라서 보는 풀이라고 했다. 과학의 힘은 결국 축적된 정보에서 나온다. 정보의 축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협력해야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일종의 집단지성이 작동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연결의 정신을 구현하려면 수평적이고 분권적인 네트워크 체제의 장점을 끌어와야 할 것이다. 집중된 권한을 아래로 분산해야 밑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하게 된다. 조직의 각 영역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춘다면 그 조직에서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 사계절출판사. 1만5000원. 전선희기자

한 통의 긴 편지에 체제 유지 맞선 반전 선언

버지니아 울프의 에세이 '3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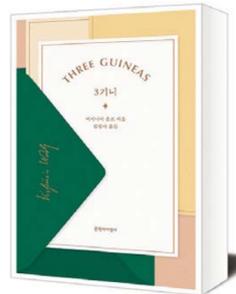
그는 '귀하'에게 편지를 쓴다. 편지에서 그는 '귀하'와 '저희'의 소통이 어렵다는 말을 꺼낸다. 만나면 같은 억양으로 대화하고, 나이프와 포크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만찬 중에 별로 힘들지 않고 정치와 국민, 전쟁과 평화를 화제로 삼을 수 있으나 그 사이엔 깊은 심연이 있다고. 이쪽에서 무슨 말을 한들 저쪽에 닿을까 하면서 보면 시간이 3년이라며 그는 묻는다. "고학력 남성의 누이에게도 영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커다란 축복'일까요?"

20세기 탁월한 작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버지니아 울프(1882-1941). 1938년 발표된 울프의 에세이 '3기니'는 아웃사이더인 여성 작가가 전쟁을 막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남성 범조인에게 보내는 한 통의 긴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다. 에세이 속 '귀하'는 허구의 인물인 남성 범

조인이고 '저희'는 '고학력 남성의 딸들'을 일컫는다. 표제에 등장하는 기니는 화폐 단위의 이름이다. 1816년 화폐법에 따라 영국에서는 기니 주화가 없어졌지만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치품의 신용 거래에서 기니 단위가 사용됐다. 런던의 명와 면담할 때 1회 진찰료가 3기니였다.

에세이 '3기니'에는 당대의 사회적 현실이 녹아있다. 그 시절의 공론장에서 가장 큰 권위를 휘두르고 있는 유력 인사들에 대한 실명 비판이 등장하는 이 작품에서 울프는 누이들의 희생과 원조로 지탱된 남성 엘리트 교육의 실패를 지적하고 남성 중심의 국가주의가 벌이는 전쟁에 반대하되 직접적인 정치적 구호 대신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반전, 평화, 비폭력의 비전을 제시한다.

'3기니' 집필을 위해 울프는 사진



에 신문 기사, 전기와 역사의 인용문, 자신의 논평 등을 모은 스크랩북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남녀의 격차를 지표로 보여주고 국내외 정세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나왔다. 이 편지에 달린 상당한 분량의 주석들은 단순한 서지 정보에서 소논문의 완성도를 갖춘 글까지 다양하고 편지 속 편지, 픽션과 논픽션 등을 오가며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글쓰기 방식을 보여준다. 김경아 옮김. 문학과지성사. 1만6000원. 전선희기자

이 책 김태일의 '... 원도심 건축기행' "그래도 남아있는 옛 골목에 생명을"



제주 원도심으로 떠나는 건축기행'에 실린 2차 매립 전 탐동 먹돌비당 전경.

생직골(생직골), 내파골, 새병골(새병골), 두목골(두목골, 두뭇골), 창뒤골, 검정목골, 칠성골, 물항골, 아랫골, 제주 원도심의 옛길 이름이다. 그는 도로 개설과 복개로 일부 옛길은 그 모습이 변했지만 1914년과 지금의 지적도를 비교하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시대의 세찬 물살이 익숙하고 오래된 것들을 모조리 앗아간 듯 해도 끝까지 살아 남아 우리를 위로하는 존재들이 있다. 제주섬의 기나긴 역사와 함께 해온 원도심이 지닌 힘이라고.

그동안 원도심 탐방객들을 위한 길라잡이를 마다하지 않았던 김태일 제주대 교수가 그 길에 놓인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권의 책을 엮었다. '제주 원도심으로 떠나는 건축기행'이다.

제주대에 재직하며 이 땅과 인연을 맺은 김 교수는 제주 읍성에서 탐동까지 다다르며 원도심 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과거 도시계획이 확대 발전 지향적이었던다면 이제는 축소 집적화하는 방향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했다.

제주성에서 탐동 매립까지 해체·소멸 수난 시절 딛고 도시계획 축소 집적화 필요

저자는 일제강점기 이후 도시화·근대화 과정 속에 제주시 시가지계획에 따라 일정부



분 도시의 성장 틀을 마련한 긍정적 부분이 있으나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원도심 공간 구조와 역사문화 자원들이 상충하거나 소멸되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 과정을 돌아보며 사라지거나 기능이 축소된 칠성대, 관덕정 광장, 제주읍성, 옛 제주시청사, 옛 제주대 용담 캠퍼스 분관, 무근성 일대 와가 등을 소환했고, 지금은 잊힌 제주 건축가들의 이름을 불러냈다. 원도심에 불자와 사람을 실어나르던 바다로 향해선 탐동 매립과 먹돌 이야기를 꺼냈다. 도시공간의 훼손이나 곧 정신세계의 훼손과 같다면 원도심에 얽힌 기억을 하나쯤 가졌던 이들은 지난 시절 적지 않은 마음의 고통을 겪었을지 모른다.

건축기행의 마지막 장에선 "우리는 어떠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란 질문을 던졌다. 저자는 "원도심 내에는 여전히 50년, 60년 세월의 때가 묻은 건축물과 옛 골목길이 파편적으로 남아있다. 도시재생은 이것들을 복원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며 "제주읍성을 지나는 산지천, 병문천, 한천 주변을 그린웨이로 조성해 장기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제안했다. 도서출판 2. 2만3000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 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